

‘원내 1당 붕괴’ 현실인가 기우인가

뉴스초점-민주 제1당 유지할까

민주 121석·한국당 116석
진보측 연대 강화 수적 우위
보수 연합 가능성은 낮아
재선거도 민주당에 유리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판을 흔들고 있는 당 지도부의 출마 자체 압력이 공개적으로 표시되면서 그 근거로 제시되는 ‘제 1당 붕괴 우려’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이춘석 사무총장은 이날 ‘현역의원 출마 자체’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회 의석 구조가 굉장히 취약해 현재 집권여당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돼 있다”면서 “기초단체장에 현역의원은 출마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정했고, 광역단체장 출마 문제도 제 1당의 지위와 기초 1번을 유지하는데 최우선으로 목표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5일 현재 원내 1당인 민주당 의석수는 121석으로,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116석)과는 5석 차이가 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의석 구조는 민주당 현역 의원 출마 시기가 이르질 경우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우선, 광역단체장에 도전하기 위해 사퇴하는 민주당 현역 의원이 한국당 의원보다 5명이 많을 경우 자연스럽게 1당이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한국당도 영남지역에서는 현역 의원 출마가 많아 5명의 차이가 나기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여야 대화모드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 등 의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지도부가 우려하는 것은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현역 의원 출마 자체를 지지하고 무소속 일부 의원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을 입당시킬 경우다.

하지만, 이 같은 민주당 지도부의 우려는 기우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여의도 정치권의 분석이다. 현재 보수세력이 이처럼 힘을 합칠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만에 하나, 제 1당의 지위를 잠시 잃더라도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재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커져 결국 또 제 1당으로 복귀할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도 현실적으로 지방선거 후어나 이뤄질 것이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제 1

당의 시점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민평당·정의당 등과 연대를 강화한다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현역 의원 출마 자체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앞세우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민주 2단계 경선...현역 의원 ‘10% 감산’

공천관리위원장에 정성호...여성·청년·장애인에 가산점

더불어민주당이 5일 6·13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2단계 경선방식 적용을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여성·청년·장애인 후보들에게는 공천심사 과정 및 경선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치신인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경선 불복 경력자나 탈당 경력자 등은 20%의 감점을 받도록 했다. 특히 중도사퇴하는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10% 감산하기로 해 현역 국회의원 출마자의 반발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당무위에서 민주당은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 지방의원 후보자 경선방식과 관련,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공천위에서는 경선후보자의 수를 고려해 1차 경선을 하고 여기서 당선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경선을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경선방식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를 통한 일반 국민투표 50%를 반영하기로 했으며, 안심번호 선거인단은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2000명, 기초단체장의 경우는 700~1000명을 표본으로 삼기로 했다.

여성이나 청년,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공직후보자 심사 단계에서는 여성에게 15%, 중증장애인 15%, 노인 15%, 청년 10~15%, 다문화 이

주민 15%, 당직자·보좌진·공로자 10%, 교육연수 이수자 10% 이하 등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이어 경선에서도 여성에게 25%, 장애인에게 2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으며, 청년 후보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 10~25%의 가산점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는 여성·청년·장애인에 가산점이 20%였다.

민주당은 또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정성호 의원을 임명했다. 공천관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나머지 인원은 추후 임명할 예정이다.

한편, 공천 심사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10% 감산’ 규정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일부 현역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靑-5당대표 내일 회동

안보 논의...홍준표 첫 참석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7일 청와대 상층에서 오찬 회동을 갖는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5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문 대통령의 초청에 여야 5당 대표 모두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폭넓고 심도 있는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한 수석이 전했다.

그동안 청와대 회동에 불참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참석하기로 함에 따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처음으로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성사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6·13 선거 현장

‘광주시장 출마’ 강기정, 금호타이어 문제 원탁회의 제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을 준비 중인 강기정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은 5일 금호타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채권단·광주시·시장 선거 후보자들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제안했다.

강 자문위원장은 이날 해외매각 반대를 주장하며 농성 중인 금호타이어 노조 조삼수 대표지회장과 정송강 곡성지회장을 직접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조 간부들과 면담 후 “금호타이어 사태는 노사 문제를 넘어 지역경



제·일자리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관련 당사자들과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위크아웃과 자율협약이 한계를 드러낸 만큼 원탁회의에서는 지역사회와 노사가 함께 원-원장을 직접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원장을 직접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민형배 광산구청장, 광주시장 예비후보 등록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7일 사임한 뒤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6·13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로 나선다.

민 구청장은 별도의 퇴임식을 갖지 않고 퇴임했다. “조용한 퇴임”을 원하는 그의 바람에 따라 광산구 역시 특별한 행사를 기획하지 않았다. 다만 민 구청장은 지난 2일, 매월 갖는 전체회의에서 8년 동안 함께 일한 공직자들에 대한 당



부와 스스로의 소회를 밝혔다.

민 구청장은 “공인 의식, 사람중심 사고, 내가 구청장이라는 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8년간 해왔던 일과 열정 그대로 간직하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오광록기자 kroh@

‘광주시장 출마’ 윤민호 공약 발표...“공동부시장제 도입”

6·13 지방선거 광주시장에 출마한 윤민호 민중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5일 공약을 발표하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동부시장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3대 시정방향·10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 곳곳에서 직접 정치 실현을 위한 거대한 물결이 터져나오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



정치세력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노동조합 가입률 10%에서 50%로 확대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 ▲농업예산 1%를 2%로 높이고 농민 수당 240만원 신설 ▲고등학교 무상교육, 청소년 노동 보호 전담 감독기관 설치 등을 제시했다. /오광록기자 kroh@

장만채 전남교육감 전남지사 출마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5일 전남지사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사퇴시한인 15일 교육감직을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 입당 절차를 거쳐 경선을 통해 전남지사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입당 가능성이 불투명하



지 않으나는 질문에 “공직 생활을 하면서 크게 잘못된 것이 없고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공당이기 때문에 입당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백재욱 전 靑 선임행정관 ‘영암·무안·신안’ 후보 등록

백재욱(54)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6·13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영암·무안·신안지역구 예비후보로 5일 등록했다.

신안 출생인 백 예비후보는 20대에 민주당 당직자로 정치활동을 시작해 민주당 대외협력국장, 정책위 부의장, 제2 사무부총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사회혁신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오는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1일 퇴임했다.

백 예비후보는 “무안국제공항을 활성화해 국제도시로 성장 발전을 도모하고, 선박설계·생산기술·R&D 분야 등 핵심기술을 육성해 첨예된 대불산업단지를 활성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식당, 커피숍, 편의점, 노래방 - 점포임대

- 지리산 온천지구 내, 최고위치 (지리산 온천 정문앞)
- 1층 - 식당(65평), 커피숍 (55평), 편의점 (55평)
- 지하 - 노래방 (85평)
- 호텔건물, 비/건 없음, 커피숍/편의점 분할가능
- 임대료 - 협의, 즉시 시설 가능
- 문의 - 010-3605-5000

나주, 2층주택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광주에서 40분
- 즉시 입주 가능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시세 - 1억 1000만원
- 매매 - 8200만원
- 주인직매. 010-3605-5000